

어린이 책꽂이

▲행복을 만드는 레슬라인 아저씨 =모리츠네 가족과 만능 문제해결사 레슬라인 아저씨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우정이 펼쳐진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주니어 김영사·8천500원>

▲베스트 한국단편 =초등학교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한국 단편소설 19권이 실려 있다. 황순원의 '소나기'를 비롯해 이효석, 김유정, 김동진, 이상, 현진건, 최서해, 주오성, 나도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들의 주옥같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글고은·1만원>

▲어린이 바이킹 이야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해적인 바이킹들의 이야기. 864년 멋진 바이킹 배를 만들어 항해에 나선 바이킹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이 펼쳐진다. <소년한길·9천800원>

▲아기곰이 많이 아파요 =감기에 걸린 아기곰을 위해 친구들이 약초를 달인 차와 장과, 그리고 사랑과 우정으로 보살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가득해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재미를 더한다. <주니어랜덤·9천원>

▲우주에서 살아가기 2 =극한 상황에서 처한 평범한 주인공들이 각종 사이비별 상식과 자연과학지식을 이용해 모험을 벌인다.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최초의 주니어 우주비행사가 소유즈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다. <아이세움·8천500원>

내시도 결혼하고 양자 들였다

내시와 궁녀, 비밀을 묻다 박상진 지음

언제나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던 내시와 궁녀가 당당히 작품 속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20%가 넘는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왕의 남자'가 바로 내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고, 잘찬리에 상영중인 영화 '궁녀'는 궁녀의 살인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서울시 사료조사위원인 박상진씨가 펴낸 '내시와 궁녀, 비밀을 묻다'는 요즘 관심사로 떠오른 내시와 궁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 책은 1부 '왕의 남자-내시'와 2부 '왕의 여자-궁녀'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시의 역사는 신라 흥

덕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미있는 건 고려 시대 중기 이전까지만 해도 내시는 학식과 재능이 뛰어난 문관들 중에서 선발된 국왕의 최측근 엘리트였다는 점이다.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주자학자 안향 등이 모두 내시를 지냈고 내시 출신 관료 중 재상에 오른 이도 22명에 달했다. 거대한 내시가 출현한 건 원나라의 환관 제도를 받아들인 중기 이후부터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내시들의 생활도 흥미롭다. 내시들은 궁궐 밖에 살림집을 갖고 있었다. 현재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일대 등이 내시들이 살던 곳



조선시대 왕을 포함한 왕족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내시와 궁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덕목은 인내력이었다. 내시가 주인공인 드라마 '왕과 나'.

이었다. 성 생활이 불가능해 가끔 부인들의 외도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어엿한 아내도 있었고 양자로 들인 자식도 있었다.

조선시대 내시부에는 노비를 포함한 3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근무했고 일부 내시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며 위세를 떨쳤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는 아들을 거세해 내시로 만들려는 이들도 많았다. 거세 전후로 조리를 잘해야 두 사람에게 한 사람 풀이 살아남는다는 위험한 출세 수단에 미련 없이 운명을 걸었던 셈이다.

책은 또 연산군이 선왕조의 후궁을 간음하려는 걸 보고 왕에게 간담아 목숨을 잃은 김소손, 세자빈을 사랑했던 내시 이만, '고자 검사'를 통해 들들난 가짜 내시 김세필 등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한다.

보통 10세 전후로 궁에 들어오는 궁녀는 보통 상궁과 나인을 이르며 각 처소의 막일을 담당하는 무수리, 상궁이 비변 날 머무는 개인의 처소에서 부리던 각실이, 의녀 등을 포함한다.

책은 궁녀를 뽑을 때 영무새의 생파를 처녀의 팔뚝에 떨어뜨려 피가 묻으면 처녀로 인정해 궁에 들어오는 영무새 감별법, 궁녀들의 입단속을 위해 행해지던 '취부리 글러' 등 궁녀의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궁녀들의 삶이 하찮은 것 만은 아니었다. 7세에 무수리로 궁에 들어와 영조를 낳고 최고 자리인 반까지 오른 숙빈 최씨, 사도세자의 모친 영빈 이씨, 살명이 필요 없는 장례인, 원나라 순제의 부인으로 중국을 호령한 기황후 등 궁녀 출신들의 활약상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태조 실록' '고려사' 등 각종 문헌을 참고하고 궁녀와 내시의 무덤 등을 발로 훑으며 다양한 팩트를 제공하지만 다소 매끄럽지 못한 글쓰기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점은 아쉽다.

<가림기획·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리처드 칼슨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현대인들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복잡다단하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마련인 것이다. 특히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하루 하루가 마음 편할 날이 없다. 때로는 해결의 묘안을 찾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경우도 있다. 어떠한 사태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거나 몇 개월이 지나면 중대하다고 여겨졌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곤 한다. 사실 대부분의 일은 이처럼 '사소한 일'일 수 있다.

책 제목이 다소 길게 느껴지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10여년 전부터 많은 이들에게 읽혀졌던 책 중의 하나이다. '아파트가 무너질까 무섭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책이 많은 집안이지만 은 식구들이 서로 권유하며 오랫동안 읽는 책은 많지 않다. 이 책은 필자가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책이 어떻게 바래도 꼭 오랫동안 가족들이 되새김하듯 읽어온 책이다.

직장이나 단체생활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난관에 봉착하거나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 난처한 경우도 있다. 조율도 되지 않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평정심을 잃게 된다.

공정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과민반응함으로써 쓰디 쓴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

또 어떤 사태에 직면할 경우 그것이 매우 중요하며 자신만이 해결의 적임자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이 때부터 사소한 일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사태가 꼬여간다.

저자인 리처드 칼슨은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대응' 방식을 버리고 사태를 거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중요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것을 이 책에서 권유하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을 간접하게 이야기 식으로 들려주는 이 책은 잘못 이루는 현대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맛보게 하는 처방제가 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대인관계나 업무, 각종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저자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사실 그 방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저자는 단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거나 공감대 지고 물 흐르듯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응'이 아닌 '순응'의 원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변화가 불가능하고 소통이 어려운 경우 차라리 수용하고 그 차이를 인식할 때 오히려 서로가 조화로움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상호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저자의 충고가 복잡다단한 생활을 영위하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모든 일을 문제없이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있던 행복과 평화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일을 해내고 마침표를 찍어가는 방식보다는 과정과 단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장>

사회 바꾸는 톡톡 튀고 기발한 아이디어

고속도로 통행권에 희망제작소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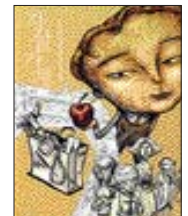
시민참여형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가 지난해 3월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책을 출간했다. '고속도로 통행권에 복권을 붙이면 정말 좋겠네'라는 긴 제목처럼 톡톡 튀고 기발한 생각들이 넘쳐난다. 그동안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모인 1천900여명의 아이디어 중 90여개를 뽑고, 변호사 박원순, 개그맨 전유성·박준형씨의 제안들을 함께 묶었다. 관용차를 경차·소형차로 바꾸자는 제안, 지하철 손잡이를 신체 조건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만들자는 의견, 유통기한 표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생각 등 일부 아이디어들은 이미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아이디어 스크램'을 통해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별별想像(별별상상)'의 전유성씨는 기발한 상상력을, 'Fun Fun Talk'의 박준형씨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위즈덤하우스·1만1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자살 도구 파는 가게 운영 가족 이야기

자살가게 장 툴레 지음

목매기용 밧줄, 동맥절단용 면도날, 할복자살용 단도, 독 물은 사과, 투신을 위해 필요한 시멘트 덩어리... 생각만 해도 개립칙한 '자살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이다. 프랑스 작가 장 툴레의 장편소설 '자살가게'는 자살에 필요한 도구를 팔고 참신한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가게를 운영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라는 다소 황당한 설정을 잡고 있다. 인간의 암울한 운명으로 변영(?)을 누려온 이 가문에 예상치 못한 암초가 나타났다. 그는 '구멍 난 콘돌을 시험하다 태어난' 막내아이를 알량. 그 콘돌은 섹스를 통해 감염돼 죽고 싶은 사람에게 파는 물건이었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매사에 긍정적인 알랑은 가족들에게 곤혹스런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무슨 일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알랑으로 인해 가족들은 점차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된다. 저자의 유쾌한 삶의 철학이 세기말적 분위기의 블랙 유머에 녹아 있어 더욱 돋보인다. <열림원·9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컴퓨터 현대직업전문학교

7·9급 공무원 행정+공안+기술직 무등고시학원 11월 1일 대개강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원적외선 플레이트 웰빙히터! 전기 히터에도 명품이 있습니다.